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 중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비상 운영 자금
4,000만 달러 승인 서명**

*주지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격리 또는 검역을 받고 있어 자택에 머무르는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유급 병가 예산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

*뉴욕 주립 대학교 부속기관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은 국가에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이 있으며, 연방 정부가 이동 제한을 확대하기 앞서 모든 유학
프로그램 검토 예정*

뉴욕의 두 번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50세의 웨스트체스터 주민

Cuomo: "뉴욕의 전반적인 위험 수준은 낮지만,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사, 병원,
응급요원들이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 중 뉴욕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할 수 있도록 4,000만 달러의 긴급 관리 허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통해 주정부는 추가 직원을 고용하는 한편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장비 및 기타 자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또는 검역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급 병가
예산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 부속기관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높은 국가에서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복귀시킬 것이며, 연방 정부의
잠재적 이동 제한 확대에 앞서 모든 유학 프로그램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는 오늘 오후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저는 정부가 상황에 직면하여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욕주의 주민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뉴욕주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0만 달러의 긴급 관리 허가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밤, 입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과시키기로 결정했고, 저는 이번 사태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대응 조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신 신속한 조치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의 전반적인 위험 수준은 낮지만,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사, 병원, 응급요원들이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Cuomo 주지사는 뉴욕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두 번째 확인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0세 남성인 웨스트체스터 주민이며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어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내에 위치한 연구 집약적인 공중 보건 실험실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즈워스 센터(Wadsworth Center)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주 전역에서 하루에 1,000건 검사할 수 있도록 병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즈워스 센터는 이러한 병원에 주 검사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검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장비 일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가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와 대중교통 시스템에 새로운 청소 절차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지난 주말 워즈워스 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작에 대한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따른 것이며, 이는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최초의 비 질병 예방 통제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검사입니다. 뉴욕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첫 번째 확진 사례는 30대 여성이었으며, 주의 워즈워스 검사 실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뉴욕주는 식품의약국이 워즈워스 센터에서 개발 및 검증한 검사를 사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시작하겠다는 워즈워스 실험실의 긴급 사용 신청서(Emergency Use Application, EUA) 요청을 승인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주 정부는 질병 예방 통제 센터로 보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검사를 수행하고 뉴욕 주민들의 공중 보건을 위해 양성 사례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워즈워스 센터는 실험실 표본을 수령하면 3~5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워즈워스 센터는 토요일 저녁에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워즈워스의 현재 검사 능력은 하루에 200건이며, 보건부는 실험실 시간 확장과 추가 직원 고용을 통해 검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질병 예방 통제 센터 및 보건부가 다른 국가(특히 이탈리아, 대한민국, 이란) 여행 및 기타 여행 기록이 없이 개인이 아무 설명 없이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시험 기준을 확대한 중대한 시간에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없지만, 일상적인 예방 조치는 이 바이러스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최소 20초 이상 자주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아플 때 집에 머무르십시오.
-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을 가리고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자주 접촉하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증상을 나타내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여행했거나, 이 지역을 여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주 정부 핫라인 1-888-364-3065로 전화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 보건부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뉴욕 주민들에게 최신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 건의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s)를 제작했으며, 하나는 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가 출연했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여러 언어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